

36-37장. 엘리후의 네 번째 이야기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시고(36:5-25)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말한다(36:26-37:20).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은 지혜지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로 마무리한다(37:21-24).

1.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말 (36:1-4)

엘리후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말을 할 것이고, 자기가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고 한다. ‘먼 데’는 하늘을 가리킬 것이다(참조 시 138:6; 렘 23:23). 하늘에 속한 지혜를 얻었으므로 자기를 지으신 분에게 의를 돌려보내라고 한다. 그는 자기의 말은 거짓이 아니고 지식을 구비한 자로서 욥에게 이야기한다고 밝힌다.

2.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시는 방법 (36:5-25)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의로움이 무궁하다고 선언한다(36:5-6). 그분은 의인을 높이셔서 왕과 함께 왕좌에 앉게 하실 것이나 그들에게 교만함과 허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신다(36:7-10)

그들이 순종하면 형통한 날을 보낼 것이나 순종치 않으면 칼에 망하고 지식이 없이 죽을 것이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죽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36:12-15).

엘리후는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을 천명한 후에 욥을 ‘너’라고 이인칭으로 지목하면서 지금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에서 구원하여 ‘넓은 곳’으로 옮겨 주실 것이고 살진 것으로 상을 차려 주실 것이다(36:16).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형벌을 순하게 받고 나아올 필요가 있다(36:18). 하나님께 원망하며 악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엘리후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통하여 그에게 교훈을 베풀어 주고 계시므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송하라고 한다.

3.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 (36:26-37:20)

엘리후는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목상하면서 찬송한다. 사람을 돌이키는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능력과 연결되었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우리가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다(36:26). 그분은 물이 증발하게 하시고 응결되어서 비로 내리게 하는 일을 행하신다. 번개와 우레로 큰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비하고 능력 있게 자연을 다스리시는 증거가 된다(36:27-33).

엘리후는 번개와 우레에서 듣거나 볼 수 있는 현상을 ‘하나님의 기이한 음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 엘리후는 눈과 큰 비, 광풍과 구름 등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천하 땅 끝까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을 장엄하게 묘사한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37:1-13).

엘리후는 “욥이여” 하면서 위에서 예로 제시한 것에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고 한다.

사람이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남풍이 불어서 뜨거운 열풍이 오는 것도 말하고 하늘이 거울처럼 되는 일도 지적하여서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암시하였다(37:14-20).

4. 전능자를 경외하라 (37:21-24)

엘리후는 폭풍이 지나간 후에 나타나는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제시한다. 북쪽에서 황금같이 밝은 빛이 나와서 하나님의 두려운 위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분을 경외하라고 권한다.